

화제의 책

「공」사상에서 삶의 해답찾는 수상집

불교의 공사상을 근간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 월창거사(月窓居士) 김대현(?~1870)의 수상집. (320쪽, 15천원)

이능화의 「불교통사」에 따르면, 김대현은 유가·도가의 많은 책들을 읽어오다가 40세가 지나 「농암경」을 읽고 크게 감동하여,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을 버리고 오로지 불서를 전공하였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인생이란 한낱

술몽채언

김대현 지음



꿈에 불과한 것이므로 물거품 같은 환상에 불과한 속세의 물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노예중의 집착을 버리고 수양을 쌓아 정념의 경지에 오르고, 견성에 도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은 꿈 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一切有爲法如夢幻泡影)'란 금강경 한구절의 해석인 듯하다. (남만성 옮김, 을유문화사, 5천원)

원효스님 등 54인 생애·사상 그려

민족사학자 신재호는 민족사 일천년래의 일대사건으로 묘향의 활동과 세종의 업적을 들었다. 고려때의 스님 묘향은 불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요승' '역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묘향은 다시 '민족자주의 화신'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주책적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어는 "부채를 강조한다

한국사의 주제적 인물들

이이화 지음



고 해서 세계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국수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어디까지나 인간과 민족이 공존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철학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 것을 온전히 가꾸어 세계사의 흐름에 참여하는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효 보조 일연 유정 만해 등 스님들을 비롯 54인 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강, 8천5백원)

재미있게 해설... 동시 삽화 곁들여

어린이 대상의 경전 강의, 그것도 어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천수경 강의는 가능할까. 이 책이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며, 그중에서도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있는 경전이다.

이 책은 천수경 한글본과 한자공부와 도움말로 구성되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천수경 공부에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지음



동화와 동시, 재미있는 예화와 만화가 이경문씨의 삽화가 곁들여 경전이 주는 어려움과 딱딱함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권징이 특징이다.

또 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에 적절한 제목을 붙여 지루함을 없앴다. 각 단락은 제목과 한글로 풀이한 천수경, 한자공부, 도움말로 구성되어 있다. 마땅한 교재가 부족한 어린이법회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해도 좋다. (불광출판부, 3천5백원)

어린이에 정직·용기와 꿈 전달

어린이 만화라면 무엇보다 내용이 건전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며, 바른 마음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겨레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나라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 민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겨레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과 '큰스님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은 37명의 역사인물을 선정, 그들의 정직과 신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순운 지음



의 아량 충정 성실 용맹의 삶을 그리고 있다.

몇해 전부터 불법복제된 일본만화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내 민족이야 어찌 되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입은 피해는 자못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제1회 '한국문화회상 저작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불지사, 4천5백원)

출가수행자의 실천 덕목 해설

서평 울장 사토 미츠오 역음 법혜스님 옮김

「율장」은 경·율·론 삼장의 하나로 원시불교경전의 중요한 일부이다. 경전의 수행과 지각을 통한 지혜의 완성을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율장은 인격완성을 위한 실천덕목과 인간의 윤리적인 화합과 단의 정인교육정신이다. 지혜의 완성과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불도의 수행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실천기준이 율장인 것이다.

법혜스님이 번역한 「율장」은 후진 불타사지의 「사본승계본」과 「사본비구니계본」을 번역한 것을 텍스트로 삼아 △총설편 △비구계편 △비구니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총설편에는 율장의 성질과 율장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율장의 내용에는 지지계(止持戒, 법에서는 안일 규칙)와 작지계(作持戒, 행하지 않으면 안일 규칙)로 나누어서 출가수행자들의 지계와 출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계율적인 측면에서 해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율이나 율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침이 되는 안내서가 될만한 책이 한편도 번역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법혜스님의 「율장」 번역출판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필독서로서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발전과 방향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침서가 되리라고 믿는다.

성 본 (중앙승가대 교수)

새로 나온 책

▲태고총림 선암사(혜우 역음)=선암사의 역사와 승종, 또 이곳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대각의 태고보우 호암약후 등 고승들의 자취를 밝혔다. 아울러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맥을 재조명하고 있어 태고총림으로서의 선암사가 지닌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작가 최정숙씨의 원색사진을 곁들여 1천4백여년의 성상을 간직한 선암사의 고색창연함을 전해준다. 경경소리, 4천원.



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고미술사학자 삼불 김원용선생의 1주기를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 후학 등 77명의 추모글을 실었다. 이 책을 통해 학문에 몰두하면서도 문학과 미술의 세계를 넘나든 예술가적인 멋과 기질과 소질, 다방면에 걸친 인사와의 풍부한 교류 등으로 뛰어난 선불의 삶을 볼 수 있다. 예경, 6천원.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지음)=마을신앙의 형태와 체계, 의례절차, 나아가 이러한 마을신앙이 지니는 의미를 현지의 자료수집과 해외의 연구성과까지도 수용해 분석했다. 민족 고유의 생활과 풍속의 참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기획된 문진출판사의 「한국의 생활과 풍속」시리즈 네번째 출간물인 이 책에서 저자는 마을신앙이 불확실한 사건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무력감을 풀어준 존재였음을 밝힌다. 문진출판, 7천5백원.

▲미하리만의 노래(원인 역음)=과거 칠불과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해 우리나라 근대의 경허선사 등 역대 선사들의 깨달음을 노래한 선승들을 모아 엮었다. 제1장 「정법승」에는 과거 칠불의 정법승과 33조사 정법승, 38점등선사 정법승을 비롯 제2장은 「선계승」, 제3장에는 「불심수행승」을 실었다. 우리출판사, 7천원.

▲이중에서 날아온 동전 한뼉(황수영 외 지음)=자난애 타

▲신비주의와 종교(로버트 엘우드 지음)=종교학의 중요관심사인 신비주의를 역사, 신비주의의 종교의 구조, 신비주의와 종교사상, 예배, 종교사회학 등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신비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이며 사회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비주의의 체험과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서창원 옮김, 이화여자출판부, 8천5백원.

명사추천 불서100선

아함경

부처님 45년설법 생생히 전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함경을 권하고 싶다. 왜 아함경을 권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쉽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가장 쉽게 가르쳤느냐 하면 원시경전이기 때문이다. 원시경전이란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45년간 유행하시면서 설법한 것을 부처님 열반 후 1년 이내에 결집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왜 이때 결집한 경전이 생생하게 전해졌느냐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5백여라한이 직접 결집했기 때문이다. 이때 결집한 경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석존께서 구시나카라 교외에서 열반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석존일행보다 좀 뒤에 여행을 하고 있던 마하가사와 일행은 저쪽에서 오고있는 한 사람의 외도(불교자가 아닌 종교인)로부터 석존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그들의 슬픔과 놀라움은 컸다. 그런데 그 일행중에는 한 사람의 높은 비구가 있어 큰소리로 생각지도 않은 폭언을 하였다 한다.

"벗들이여 근심할 것 없다. 슬퍼할 것도 없다. 우리들은 이제 대사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대사문은 '이 일은 너에게는 어울린다. 이 일은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한 갑진 (한진총업 대표)

오백 아라한이 불타 열반 직후에 결집

다'라고 우리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들은 하고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때 마하가사와는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석존의 다비가 끝난 다음 그는 도반들을 모아서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우리들은 모두가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여 마법이 일어나서 정법이 쇠퇴하고, 비유로 정음이 쇠퇴하고 비법을 설하는 자가 강하고 정법을 설하는 자가 약하고, 비유를 설하는 자가 강하고 정법을 설하는 자가 약한 때를 알지못하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바른 교법이 흔들리고 바른 계율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므로 이를 알지못한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들 비구들은 즉시 그 제안에 찬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하가사와가 선정한 5백여라한에 의하여 결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결집 즉 요즘 말로 한다면 편집회의는

마하가사와가 수좌에 앉고 아난다가 승술자로 선출되었다. 아난다는 오랫동안 석존의 시자로서 스승이 어디서 어떤 교법을 설했는지를 그가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라리였다. 그는 계율을 지키는 데 가장 엄숙하였다. 계율합송에는 그가 승술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석존께서 설한 교법과 계율은 석존께서 열반후 일년내에 합송후 확립되었다. 이것이 석존의 제자들의 최초의 사업이었다. 그 교법이 결집된 것을 오부라 한다.요즘 우리가 접하는 어려운 문장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는가. 구송체니 간단명료하고 기억하기 쉽게 반복하였던것이 아함경이다.

그러나 아함경은 읽기 쉽고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께 직접 듣는 것과 같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것이다.

입시제지론 답야 불서연 「교육대개혁」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리현상을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결책을 찾고 있는 한국불교사회연구소는 부설 출판사「모색」을 통해 「교육대개혁」을 펴냈다.

저자들은 (송희식, 송한식)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입시제도의 완전폐지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Table with 5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분류.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구입문의: (02)737-0695

불음 가득 · 범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곁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사지정보(회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민담과 함께 범향 들뜬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흥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